

첫 아버지됨의 체험

Men's First Experience of Fatherhood

김혜선(Hye-Seon Kim)¹⁾

ABSTRACT

To achieve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essence of the process of becoming a father, the Colazzi method for analysis of phenomenological and qualitative research was applied to examination of in-depth interviews of 7 fathers in their early twenties and thirties residing in Gwangju City. Interviews were held individually three times during Oct~Dec. 2004. Subjects were first time parents of babies less than 12 months of age. Results were that these first time parents' experience of fatherhood was understood in 37 themes, 13 theme clusters, and 5 categories : "beginning life treated as a father," "witnessing continuous substance of pain," "escape from family-centered life," "the baby seems to recognize me as a father," and "acquiring insight of a father."

Key Words : 첫아버지됨의 체험(men's first experience of fatherhood), 현상학(phenomenology),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엄부자모(嚴父慈母)”라 하여 아버지는 엄하고 어머니는 인자한 모습으로 자녀를 양육해야한다는 말을 널리 사용하였으며, 자녀가 사랑스럽다고 해서 이를 표현하게 되면 자녀의 버릇이 없어지기 때문에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여 자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다. 이러한 아버지는 비록 엄하였으나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관심이 어머니 못지않게 컸으며, 아버지가 자녀교육을 직접 감당하고 감독하는 경향이 매우 짙었다(최혜숙, 1997).

하지만 60-70년대의 경제성장기를 거치는 동안 아버지들은 경제적 제공자의 역할에만 집중함으로써 과거의 아버지들과는 달리 자녀들을

¹⁾ 삼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Corresponding Author : Hye-Seon Kim, Department of Social Work, Samcheok National University, Kangwon 245-711, Korea E-mail : welcom-kim@samcheok.ac.kr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아버지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할 여유도 없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소원해져갔다(한경혜, 1995).

그러나 전후 세대의 아버지들은 유교적 가부장으로서의 아버지의 권위가 깨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며 다정한 아버지,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 주는 양육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가족과 사회로부터 요구받았고(한경혜, 1995), 오늘날 이상적인 아버지는 부양자 역할뿐 아니라 자녀를 능동적으로 돌보고 일상적인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로 정의되고 있다(이영환·이진숙·조복희, 1999). 즉, 이 시대의 새로운 아버지상은 '경제 제공자로서 아버지'보다는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근무시간 이후 남겨지는 시간에 자녀와 다양한 활동을 추구하는 '부드럽고 양육적인 아버지'라 할 수 있다(이숙현, 2001).

이러한 아버지상의 변화와 고찰은 자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중요성에 기인한 것으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갖는 의미,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행동에 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이영환 외, 1999; 이정순, 2003; 현정환, 2004; 송순외 2005; Hott, 1976).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신생아를 돌보는 능력과 준비태세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하등의 차이가 없으며 아버지도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아이에게 집중적인 관심과 애정을 쏟기 때문에(Green & Morrison, 1975; 김인홍, 1997 재인용),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히 신생아를 돌보는데 적합하며, 상호 작용상 몇몇 상이점이 있으나 아버지도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아이와 집중적으로 상호교류하고 있는 등(Greenberg & Fthenakis, 1988, 김인홍, 1997 재인용), 대다수 아버지들은 자녀를 돌보고자 하는 바람과 능력을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Gerson, 1997). Lamb(1981)도 아버지가 아동 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적다할지라도 아동 양

육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머니와 비슷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요구에 대해 아버지가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했고, 정현희와 최경순(1997)도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유아의 인지발달을 강화시키고 성역할 발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아버지와 아동과의 애착 형성을 연구한 차은주(1986)는 신생아 시기에 아버지와 유대관계에 어려움을 갖은 아동은 성장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버지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아내의 임신과 출산으로 사회적 지위가 아버지로 전환되는 부성전환은 남성의 전 인생발달 주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며 동시에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성전환의 시기를 남성이 어떻게 적응하고 대처해 나가는가에 따라 아버지로서의 역할수행 즉, 양육참여와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Hott, 1976).

그러나 아버지상의 변화와 자녀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중요성을 밝히는 여러 문헌들에서는 남성이 아버지로 부성 전환하는 첫아버지됨의 생생한 체험의 의미를 발견하려는 시도가 없었다. 비록 김귀숙(1998), 조선화와 최명선(2002)이 질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아버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색하려고 했지만 연구대상이 아버지 자신이 아니거나 단발성의 자기보고식 방법을 사용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아버지의 역할이 자녀의 출산 전부터 아내와 같이 준비하고 분만에 참여하여 신생아 또는 영아의 양육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이러한 역할참여는 아동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으로 인해 아버지 자신도 성숙한 인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조복희, 정옥분, 유가효, 1997) 남성이 아버지로 전

환하는 시기의 체험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아동의 직접적인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아버지의 성숙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을 돕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있는 그대로의 경험을 연구하는 데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연구 참여자의 기술을 토대로 경험의 의미, 경험의 내적 구조를 나타내고 기술의 생생한 경험을 이해하는데 적합한 방법(신경림, 1997)이기 때문이다. 즉,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생활 속에서의 인간 경험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며, 참여자의 관점에서 그들의 생활하는 삶과 내면세계를 이해함으로써 그들의 경험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Joen, 1995), 부성전환을 의미하는 첫아버지됨의 경험과 그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파악하여 아동의 양육환경으로써 아버지의 역할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론과 실천방법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 아이가 돌이 지나지 않은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남성들 자신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첫아버지의 생생한 체험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아동과 아버지 자신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입 방안의 확대에 도움이 되고자 하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첫 아이가 돌이 지나지 않은 기혼남성으로,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8명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20대에서 30대에 이르며, 교육수준은 초대졸 4명, 대졸 이상이 4명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연애결혼이었으며, 연구 참여자 7의 경우를 제외한 다른 연구 대상자들은 평소 ‘결혼 1-2년 후에 아이를 낳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첫 아이 임신 시기가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경우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7은 8년간 아이를 기다렸고 2004년 12월 현재 이란성 쌍둥이인 11개월 된 딸과 아들을 두고 있었다.

〈연구참여자의 특성〉

연구참여자	나 이	교 육	직 업	계획된 임신이었는가	임신시기
연구참여자 1	26세	초대졸	직업군인	아님	결혼 전
연구참여자 2	33세	대 졸	회 사 원	아님	결혼 전
연구참여자 3	32세	대 졸	회 사 원	아님	1년 후
연구참여자 4	29세	대 졸	회 사 원	아님	6개월 후
연구참여자 5	32세	초대졸	판 매 원	아님	1년 후
연구참여자 6	28세	초대졸	회 사 원	아님	결혼 후 바로
연구참여자 7	39세	대 졸	사회복지사	계획한 임신	8년 후
연구참여자 8	31세	초대졸	회 사 원	아님	결혼 후 바로

2. 인터뷰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04년 10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첫 아이가 돌이 지나지 않은 기혼남성 8명을 대상으로, ‘첫 아버지가 됨에 대한 체험’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대상자를 만나 심층면담과 참여 관찰을 실시하였고, 그 내용을 인터뷰가 끝난 후 돌아와서 녹취하였다. 자료의 포화까지 자료 수집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Kvale, 1998)으로 각 3차례의 면담이 이루어졌고, 면담시간은 30분에서 2시간이 걸렸으며,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사무실, 집 등 연구 대상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면담 시작은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였고, 면담 내용은 자료수집과 분석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모두 녹음하였으며, 그 날 면담하여 녹음한 내용은 녹취록을 만든 후 디스켓에 저장, 인쇄하여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면담과정 동안에 Mose와 Field(1997)의 ‘동의과정’을 사용하여(신경림 역, 2002) 연구 참여자들을 고려하였다. 이는 인간의 권리와 보호를 강조하며 연구 참여자 모집과정, 연구에 대한 동의과정, 연구 참여자에 대한 사전 연구 과정, 연구 참여자 의뢰 등 매 순간마다 옹호하는 역할을 함께 함을 의미한다. 연구자는 첫 면담시에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고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어느 때라도 철회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였고, 연구과정에 대한 동의와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두로 받고 이를 녹음하였다.

3. 자료의 분석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자료 분석 과정은 Spiegelberg에 의해 제시된 철학적 방법과 그로부터

변형되어 사회과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Colazzi, Van Manen 등의 방법을 들 수 있다. 그 중 Colazzi(1978)의 분석방법은 연구대상자의 개인적인 속성보다는 전체 연구 참여자의 공통된 속성을 도출해내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분석절차는 대상자의 기술을 읽어서 구, 문장으로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한 후 이를 좀더 일반적인 형태로 재 진술하고 구성된 의미를 주제(Theme), 주제묶음(Theme clusters), 범주(Categories)로 조직하는 것이다.

4.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4가지 항목인 중립성(neutrality), 일관성(consistency), 사실적인 가치(true value), 응용성(applicability)에 근거하였다. 문장을 명확히 하려고 여러 번 읽음으로써 사실적 가치에 가깝게 표현될 수 있는 서술과 표현의 정교함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현상을 관찰할 때 판단중지를 통해 중립성을 유지하였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면담자료를 현상학적 연구 경험이 있는 교수 1명과 박사 수료이상의 질적 연구자 2명에게 의뢰하여 결과의 지지를 높였다. 또한 응용성은 연구 상황 밖의 맥락에서 자료의 적절성에 의해 평가되는 질적 연구의 적용가능성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 이외에 연구대상자와 비슷한 연령대의 기혼남성 중 첫 아이의 돌이 지나지 않은 아버지들에게 읽혀 그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된 결과를 서술하고 연구결과를 연구 참여자에게 다시 읽힘으로써 자신의 체험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Ⅲ. 연구결과

연구참여자와의 면담자료로부터 첫아버지됨의 체험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텍스트와 주제 진술로 여러 번 돌아가 현상학적 반성을 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가 말한 의미 있는 진술은 <표 1>과 같이 54개였으며, 이에 상응하여 연구자가 구성한 범주는 5개로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의미구성을 통해 40개의 주제가 형성되었고, 이는 다시 14개의 주제묶음으로 첫 아

버지됨의 체험에서 나타나는 의미를 제시하였다.

범주 1. 아버지로 취급받는 생활이 시작됨

주제묶음 1. 임신소식에 양가감정이 들

연구참여자들은 아내로부터 임신소식을 듣고 기쁨보다는 막막함, 두려움, 걱정, 어리둥절함, 놀람, 당혹스러움 등을 표현했다. 대중매체 등을 통해서 임신소식에 감격해 하는 남편들을 익히 보았었지만 자신이 경험하는 실제 상황은 감격스럽

<표 1> 첫 아버지됨의 체험에 대한 범주

범 주	주 제 묶 음	주 제
아버지로 취급받는 생활이 시작됨	임신소식에 양가감정이 들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막막하고 답답함 -실감이 나지 않고 걱정이 앞섬. -두려움, 기대, 설레임, 그중에서 두려움이 가장 큼 -하루 이틀 지나 당혹스러운 것은 없어짐 -놀랐지만 실제적으로 참 좋았음
	태아의 존재가 신기함	-초음파검사로 배속아이가 움직이는 것을 봄 -태동을 경험함
	나름대로 산모를 배려함	-여러 가지로 포기함 -많이 참음 -말조심도 하고 혼자 분도 삭임
끝이 없는 고통의 실체를 목격함	만삭의 아내의 심정이 다가옴	-몸을 움직일 때 보는 심정이 안타까움 -출산일이 가까워지면서 아내와 아이를 걱정하게 됨
	분만에 대해 겁이 남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조마조마함 -겁이 나고 긴장됨 -아이보다는 아내가 더 걱정됨
	산고의 고통이 마음에 와 닿음	-피가 마름 -더 이상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없음 -안쓰럽고 눈물이 나옴
가정의 중심에서 벗어남	낮설음 속에서 생애 처음으로 내 아이를 만남	-태어난 아이의 형상이 생각과는 다름 -생애 처음으로 아이를 안은 기분이 좋음
	아이 위주로 생활이 바뀜	-뭘든지 아이를 먼저 생각함 -아이의 일상이 아내와의 주 대화 내용이 됨
	아이를 돌보는 일이 버겁고 피하고 싶음	-아이 돌보는 일을 배워감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활로 인해 힘겨움 -아이 돌보는 일을 서로 미룸 -직장일이 가족일이라고 합리화함

〈표 1〉 계속

범 주	주 제 목 음	주 제
아이가 나를 아버지로 알아보는 것 같음	나를 아버지로 알아보는 것 같은 아이로 인해 기쁨	-실감나지는 않지만 내 앞에 아이가 있음 -아빠를 인식하는 아이를 느낌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부름
	아이로 인해 가정생활이 더 없이 행복함	-아이의 존재가 더없이 좋음 -가정에서 시간을 더 보내고 싶음 -아이의 존재가 생활을 지탱하는 힘이 됨
아버지로서 각오가 생김	내 아버지를 떠올림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상함 -아버지의 양육방식을 되짚어 봄
	부모의 의미를 되새김	-부모라는 존재의 의미를 생각함 -부모로서의 마음을 가짐
	아버지로서 각오가 생김	-편안한 가정 분위기를 만들고 싶음 -멋뎡하고 다정한 아버지가 되고 싶음 -사회적, 경제적 능력이 있는 아버지가 되고 싶음 -아이를 지켜주는 아버지가 되고 싶음

지도 그렇다고 아주 싫은 것도 아닌 양가감정이 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결혼과 아이를 갖는 것을 당연한 순리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2세 계획도 세웠었지만 자신이 세운 계획에서 어긋났다는 점, 누군가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 등으로 인하여 임신사실을 듣고 편치만은 않았다.

그 때는 진짜로 막막했죠... 막막해... 제 나이가... 25세에 아빠 될 생각을 하니깐 진짜 겁났죠...이 청춘을 불살라야 되는 시기에 참...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한 여자의 품안에서 자식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을 생각하니깐... 진짜로 답답했죠. 난 어떻게 보면 마음에 준비가 안돼 있었어요. 나는 물론 임신했다는 것도 알고 결혼했고, 결혼생활을 시작했지만 솔직한 얘기로 마음의 준비가 안돼 있는 나이이고 또 서둘러 결혼을 하다보니까 막상 결혼 생활이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짐사람 배는 불러오고 곧 아이는 태어 날거고 그런 마음의 중압감이 많았고...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연구참여자 1).

그 때는 당연히 계획에 없던 거라 아무 느낌이 안 나고 뭐 실감 실감이라 할까 실감이 전혀 안 났어요. 그게 그녀가 드라마에서 보면 엄청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얘기가 갑자기 덜컥 생겨 버리니까 그녀가 아내가 학교를 어떻게 다녀야 되는지 걱정부

터 앞섰어요(연구참여자 4).

원래는 한 2년 후에 가지려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죠. 2년 후에 계획을 잡았는데 그게 안 되고 바로 임신이 되었으니까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어요(연구참여자 6).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이 가장 컸고... 아기에 대한 두려움이, 나의 주니어가 생긴다... 어떤 것일까? 실감도 안 나고 두려움이 가장 컸던 것 같고... 기쁜 면도 한편에 있었는데 두려움과 기대, 설레임이 짝뿔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컸던 것이 두려움(연구참여자 2).

그 전에 아기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상황이 안 좋으니까. 상황이 안 되고, 안 좋으니까 그러자마자 아기가 생기니까, 아기 원치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순간은 당황스러웠지... 당혹스러운 건 하루 이틀 지나서 없어졌지만...(연구참여자 5).

가족계획, 결혼 후 3년 후 생각했는데 머 마음대로 안 되서 가졌는데 사실은 놀랐어요. 놀랐는데 처음 반응이 아 기쁘다 이게 아니라 좀 놀랐다가 실제적으로 참 좋았거든요(연구참여자 8).

주제목음 2. 태아의 존재가 신기하기만 함

임신을 통해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직접 경험하는 아내들과는 달리 임신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관념적인 수준의 지식을 가진 연구참여자

들은 태아의 존재가 늘 실감나지 않는 실체로만 여겨졌다. 다만 초음파 검사나 태동을 통해서 자신의 분신을 막연히 인식하며 걸으로는 볼 수 없는 존재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그저 신기하기만 했다.

나는 친척이나 누나가 없었기 때문에, 본적도 없었기 때문에 내 마누라가 내 아기를 임신해가지고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이고 있을 때 그걸 봤을 때 참 신기하고 그랬죠... 내 애기가 저 안에서 진짜 살아 있구나... 솔직히 말로만 임신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본적도 없고 어떻게 태어나는지도 모르니까(연구참여자 1).

6개월, 7개월 정도 되었을 때 발길질을 느꼈고 그리고 우리 ○○이가 뱃속에서 움직이는 그것을 먼저 봤어요. 그때 보니까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연구참여자 3).

참 신기하더라고요. 특별하게 감정이 크게 폭발했던 것은 아니고 그냥 신기하다는 거 나는 이상하게도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 밖에 안 들었어요(연구참여자 8).

내가 가서 초음파를 보면서 그 때는 내가 실감을, 의사선생님이 보여주면서 이게 애기다, 애기라고 딱 보여 줄 때는 아... 이게 임신이라는 생각을 했죠(연구참여자 7).

발로 차는지 손으로 차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발로 차거나 그런 느낌이 엄청 좋았어요. 처음 느낌이니까(연구참여자 6).

주제묶음 3. 나름대로 산모를 배려함

임신으로 인한 이렇다할 변화들을 직접 체험할 수 없는 연구참여자들은 입덧 등으로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 전에 해왔던 자신의 습관, 성격 등을 바꾸어보려고 노력했다. 비록 아내들이 보기에는 이러한 마음가짐과 행동들이 미비한 수준이었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현실에 적응하려고 나름대로 포기하고, 참고, 조심하였다.

몸이 너무 힘들니까 임신부들... 집사람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설거지도 많이 도와주고, 집안 일도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했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이 사주려고 노력했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신랑한테 짜증도 많이 내고 여러 가지로 포기되는 부분도 많았지요(연구참여자 1).

임신하기 전에는 제가 술을 많이 좋아해 가지고 많이 늦게 다니고 그랬거든요. 시간도 한 새벽까지 마시고 들어가고 그 때 싸우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임신사실을 알고 나서는 일주일에 한 3-4번 먹을 거 한 번 먹고 늦게 들어갈 거 좀 더 빨리 들어가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구요. 내가 만약 심하게 싸우면 그렇게 들어 티격태격 싸우면 안 좋을 꺼라고. 그런 생각하면서 그냥 많이 참았죠(연구참여자 6).

싸움하는 경우가 있었죠. 물론 없었다는 건 거짓말이고 실질적으로 좀 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임신한 상태에서 싸우는 것보다는 한발자국 물러서서 트러블이 있을 때 같은 경우는 나가서 담배 하나 피고 들어와서 삭히고 그래요. 와이프가 임신하고 나서 서로간의 말이 조심해졌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많이 피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삼가게 되고... 임신했을 때 내가 못해줬다고... 서운하다고... 그 때 그게 서운하네요. 내가 못해 준 것에 대해서 내가 공감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처럼 크게 못해줬다고는 생각을 안했는데... 당사자가 힘들었다고 하면 그게 힘들었던 것 같죠(연구참여자 8).

주제묶음 4. 만삭의 아내의 심정이 다가옴

연구참여자들은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고 아내의 몸 상태가 눈에 띄게 달라지면서 임신을 보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였다. 임신으로 인해 아내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분만이 순조로울 것인지, 아이가 제대로 태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전과는 다르게 실제적으로 걱정하였다.

와이프가 몸을 이끌고 할 때 보는 심정이 안타깝죠. 요즘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군대를 가냐...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그런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결혼하는 전에는 여자들이 그렇게 뱃속에 아이를 열 달 동안 넣고 있는 게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거든요. 그까짓 것 10달,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옆에서 지켜보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내가 내 뱃속에 아이를 안고 있었던 건 아니데, 실질적으로 어떨 때는 그런 심정을 같이 느낄 때도 있었어요, 조금은 힘들었어요. 진짜로. 출산일이 가까워지면

서 더 걱정도 많이 되고... 와이프에 대한 걱정, 아이에 대한 걱정(연구참여자 8).

범주 2. 끝이 없는 고통의 실체를 목격함

주제묶음 1. 분만에 대해 겁이 남

연구참여자들은 분만이 시작되면서 평정심을 잃고 있었다. 병원에 오는 수 분 거리도 수 시간 거리처럼 멀게 느껴지고 아는 것도 없이 마음만 급해지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지나 않을 까하는 생각에 겁도 나고 아이 보다는 아내가 무사하기만을 바라지만 떠오르는 생각이 불길하기만 해서 온통 마음이 심란하기만 했다.

초보 아빠이기 때문에 양수가 터졌다고 그러면서 뭐 위독한지 안 위독한지... 저 같은 경우는 위독한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큰누나한테 전화해보고 그래서 물어보고 하고. 더욱 많이 급했던 것은 그 때 퇴근시간이라 집까지 가는 시간이 엄청 길었어요. 저 생각에는 길었는데 막상 도착해보니깐 시간은 몇 분 안됐거든요. 일단 양수가 터졌기 때문에 세균감염 그런데 좀 많이... 그게 계속 머릿속에 남았죠. 그래서 애가 제대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일이 또 있는 건지, 많이 조마조마했죠(연구참여자 6).

처음에는 와이프가 겁이 나니까. 첫 애고 해서... 겁이 나고, 저도 처음이라서 겁이 나고 그래서 병원에 가 있는데 처음에는 분만실로 바로 들어가서 애기를 낳는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었고, 분만 대기실로 먼저 들어가서 기다렸더니 뭐 그... 입원실도 잡고 뭐뭐... 간호사들은 그렇게 급하게 생각은 안 하는데... 나는 긴장을 해서 그랬는지... 그 쪽에서 안심을 시키더라고요(연구참여자 8).

마취가 잘 안 돼서 인제 수술 시작한다고 그러드만요. 그래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생각했어요. 우리 와이프는 2시간이 지나도 뭐 연락이 없어. 연락이... 사람이 또 불길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잘못됐다 이 생각도 하고, TV를 많이 보니까 잘못됐다 생각이 불현듯 딱 들더라고요. 2시간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수술실에서 나오는데 처형이랑 동서랑 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기고 간에 시간이 지나니깐 그 생각밖에 안들드만요. 아기는... 아기는 혹시 몰라도 산모는 무사해서... 우리 직원들도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데 직원들이 전화오고 난리예요. 난 더 죽겠죠(연구참여자 7).

주제묶음 2. 산고의 고통이 마음에 와 닿음

분만을 지켜보던 연구참여자들은 아내들의 고통스러운 산고에 피가 마를 것 같은 충격에 빠지기도 했고, 산고를 같이 겪는 것처럼 신체적 통증을 경험했으며, 아내의 힘겨움을 덜어 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미안함을 느꼈다. 그렇게 힘들게 아이를 만나서인지 세상을 향해 모습을 드러낸 첫 아이를 보며 죽을 것 같은 산고를 치러낸 처연한 아내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침을 삼키며) 지켜보면서 그 진통을 겪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제가 인제 하나만 낳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어냐면 그 진통이 진통을 보고 있는 내가 다음 또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그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진통을 겪는 사람도 물론 힘들겠지만 보고 있는 저도 피가 말라서, 인제 그 때 계획을 하나만 잡은 거예요... 진통 때 겪은 10시간의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2세를 가질 마음이 없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른 산모들은 어떻게 낳았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애기를 먼저 보고 나중에 30분 후에 산모가 나왔는데 산모가 마취를 했기 때문에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걸 보는데 눈물이 그냥 펴 돌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말은 할 수가 없었어요. 고생했다고 손 한번 잡아주었어요(연구참여자 6).

계속 와이프가 힘들어하는데 저도 마음이 안쓰러웠죠. 저도 그 때... 긴장을 해서 그랬는지 그... 허리가 상당히 아팠거든요... 와이프랑 같이 애를 낳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같이 들어가면 부인이 힘을 얻는다고 해서, 따라 들어갔는데, 분만실에 들어가서 느꼈던 그 20분 동안의 고통은 흠... 엄청나더라고요... 얼굴을 보니까 다음에는 애기 낳자는 말 못할 정도로 고생을 하면서 애기를 낳는데, 참 보기 안쓰러웠어요(연구참여자 8).

아이를 안았을 때 그니깐 오히려 기쁘기보다는 그니깐 아내가 아이를 낳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를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함께 아파하지 못한다는 거, 아이를 낳는 아픔을 모른다는 사실과 또 엄마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것 등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너무 많이 생각들이 있었어요(연구참여자 4).

딱 태어났을 때 그때 딱 내가 내 손에 안고 땀줄을 잘랐는데 아... 진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거든요. 내가 의도하지 않게 그 광경을 다 지켜보고

마지막에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기를 딱 손에 들고 안았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연구참여자 1).

주제묶음 3. 낯설음 속에서 생애 처음으로 내 아이를 만남

연구참여자들은 태어난 아이가 자신이 상상하고 기대했던 모습과는 달리 불품없는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실망스러워 했다. 내 아이인데도 어디를 닮았는지 알 수도 없고 작고 여린 신생아의 모습은 마음에 와 닿지도 않았다. 다만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신음과 울부짖음이 베여 있는 산고의 현장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생애 처음으로 갖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만나면서 안도감, 떨림 그리고 신기함을 느끼고 있었다.

참 조그맣고 못생겼다... 역시나 떨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아이구(팔뚝을 잡으며) 요만하고... 이게 사람이구나(연구참여자 1).

애기는 막봤을 때 못생겼다. 누굴 닮았나... 못 생겼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연구참여자 5).

실질적으로 아이를 봤을 때 딱 느낌이 와! 이쁘다, 내 새끼다, 이런 감정보다는 좀, 애기가...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을 먼저 받았고, 애기 얼굴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손가락 열개 있는지 발가락 열개 있는지 그거 먼저 봤어요. 근데 이제... 간호사가 탯줄을 자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보는 순간 우와, 진짜, 딱 손이 떨려가지고 탯줄을 어떻게 잘랐는지 기억이 잘 안나요(연구참여자 8).

어떻게 생겼을까? 참 궁금해가지고... 10개월 됐을 때 초음파 검사를 했거든요. 그 때 얼굴을 잠깐 봤었는데 보이는 거라고는 눈, 코, 입... 그것도 해골 같이 생긴 그것 밖에 못 봐서... 뭐라고 해야 하나 나와야 이놈 얼굴을 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막 봤을 때 느낌은 뭐라고 해야 될까? 야! 얼굴에 피가 많이 묻어 있고 그런데 일단은 낳을 때는 그렇게 사람같다... 그런 생각은 안들더라고요(연구참여자 3).

아이를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어... 좋았어요(연구참여자 4).

어떻게 말로 표현하죠. 엄청 기분 좋구요. 생애 처음으로 안은 것이기 때문에 그 기분은 말로 할 수 없어요(연구참여자 6).

범주 3. 가정의 중심에서 벗어나

주제묶음 1. 아이 위주로 생활이 바뀌

자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가정생활이 아이를 낳은 후에는 모든 것이 아이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제 아이는 가족 내의 관심사이며, 모든 대화의 주제가 되었다. 아이는 연구 참여자들의 일상생활까지 변화시키고 있었다.

나는 솔직히 상관 없어요... 아기가 지금 우리 가족의, 가족 중에서 제일 소중한,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의 나 아닌 또 다른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아기를 두 번, 세 번째 키우는 것도 아니고 첫 아이이기 때문에 아기를 위해 온 힘을 쏟는 게 보기에 좋죠(연구참여자 1).

패턴이 조금 변하죠. 모든 게 보면 저희 주위로 가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 아이 중심으로 가죠... 뭐든지 아이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가죠(연구참여자 6).

거의 모든 것이 이제 애기 위주죠. 모든 생활의 거의 90% 이상이 애기 위주로 이루어지죠. 아들이 잠을 안자고 있으면 애기하고 놀고 놀아야지. 하루 종일 안 봤으니깐 애기하고 놀면서 따로 대화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애기하고 노는 게 대화고 또 그 옆에서 애기 엄마가 낮에는 뭘 했다 이랬다 오늘엔 힘들었다 어쨌다 이게 주 대화고 내용이야. 오늘 낮에 우리 아들이 어쨌다. 이게 대화야 다른 대화가 없어. 퇴근 후에 하는 일은 아들이 안자면 놀아주고 애기가 자면 밥 먹고 조심스럽게 애기가 깰까봐 아들이 민감해서 자주 깨거든. 조심스럽게 불도 못 켜요. 불 꺼놓고 있어 분위기 자체가 아들이 자면 자는 분위기야(연구참여자 5).

주제묶음 2. 아이를 돌보는 일이 버겁고 피하고 싶음

연구참여자들은 난생처음으로 아이를 돌보는 일에 관심을 보이며 부모의 역할을 해보려 하지만 기저귀 가는 것, 우유 먹이는 것, 우는 아이 달래는 것 등 새롭게 신경을 써가며 배워야 할 것들이 많고 아이로 인해 지금까지 익숙했던 생활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점점 더 버거워 했다. 아내의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지켜보기만 했던

연구참여자들은 결국 예전의 생활처럼 밖에서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내와 아이를 위한 것이라고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해석하며 아이를 직접 돌보는 일을 애써 피해보려고 했다.

기저귀 가는 거, 우유 먹이는 거, 지금은 하는데 처음에는 못했죠... 많이 서툴고 그래서 와이프한테 지금은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하고 있죠(연구참여자 6).

아이를 볼 때 제일 힘든 점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내가 21년 동안 살아온 거하고 생활패턴이 전혀 다르게 바뀌어 버리니까 그게 가장 힘들고... 대부분 잠을 곤히 자야할 시간에 못 자고 그 다음에 쉴 수 있어야 할 시간에 못 쉬고... 행동을 하고 싶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아기가 울 때는 정말 피곤해 가지고 오늘은 정말 쉬고 싶다 하는데 막 울고 보채고 할 때는 나도 진짜로 힘들어 질 때가 있어요. 아이 낳고는 솔직히 정말 힘들었어요. 그 때는 왜냐면 그 지금까지 모든 생활패턴이 다 뒤엎고 막...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또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 이게 한 4개월, 5개월 되니까 지금은 이게 또 내 현실인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1).

부부싸움은 덜하지 않아요. 왜냐면 산모는 산모대로 애기가 태어나고 나면 힘드니까 똑같아요. 애기 가졌을 때나 애기 난후에도. 내가 못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엄마는 엄마대로 계속 힘들어요. 계속 힘들고 하는데 나는 거기에 못 받쳐주고 하니까... 그리고 아기 자다가 깨어나면 안아주어야 하는데 서로 안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하기 싫으니까 안하지. 거의 안하지... 피곤한데... 그리고 딱히 하기 싫은 것보다 미룬다는 거지(연구참여자 5).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음...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했고 근데 아마 집사람이 내가 도와준 정도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할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나 역시 그냥 여기저기 시달리다 보면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여유도 없고 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퇴근을 대부분 한... 6시에서 7시 사이에 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시간은 물론 다 투자를 할 수 있죠(머쓱하니 웃는다). 솔직히 그렇게는 못하고 더더군다나 나도 직장이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하는 일대로 움직이지만... 그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가족을 우선적으로 생각지는 못해요. 일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 우선이지만 가족을 위해서 일을 일예다가 중요시, 중요한 정도를 더 많이 부여하기 때문에 그... 일단 직장이 우선이지만

그 직장을 우선시 하는 게 가족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연구참여자 1).

아무래도 제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많이 소홀했어요. 사실은 아이하고 놀아주지도 못하고 또 집안 살림에 대해서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아내한테만 의지하게 되고, 모든 게 직장 제 생활이 직장위주로 돌아가는 것같고(연구참여자 4).

범주 4. 아이가 나를 아버지로 알아보는 것 같음

주제묶음 1. 나를 아버지로 알아보는 것 같은 아이로 인해 기쁨

연구참여자들은 임신과 산고의 고통을 지켜보았지만 여전히 아이의 존재가 본능적으로 와 닿지는 않았다. 아이와 부자간의 정을 느끼기 위해서 자신이 아버지인 점을 되새겨 가며 아이의 눈빛에서, 아이의 웃음에서 그리고 아이와의 신체적 접촉에서 혈육의 정이라는 것을 만들어가려고 했다.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나를 찾는 애들의 눈빛을 보면 실감이 잘 안나요. 아직도 실감이 안 나는데 그래도 이 녀석들이 내 새끼구나 생각을 하죠(연구참여자 7).

목욕을 시키면서 참... 내가 느낀 게 애가 진정 내 아들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애기를 낳았나, 애들을 낳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연구참여자 8).

○○이 낳은 후에 아빠가 됐대, 처음에는 그걸 못 느꼈어요. 한 백일 정도 지나고 ○○이가 인제 엄마를 알아보고 아빠도 알아보고 했을 때, 아... 진짜 아빠가 됐구나 그 때 느꼈어요. ○○이가 엄마, 아빠 그렇게 알아보고 웃을 때가 참 좋습니다(연구참여자 3).

제일 기뻐던 순간은 나를 알아볼 때, 아주 신생아 때는 눈이 제대로 초점을 못 맞추니까 누가 엄마인지 아빠인지 잘 몰라요. 몇 개월이 지나야 초점을 맞추거든요... 시기를 좀 지나고 얼굴을 익히면 아! 저 사람이 우리 아빠고 엄마구나 인식을 하죠. 그래서 우리 애기가 나를 아빠라는 것 알고 웃는다거나 안긴다거나 그러면서 아빠라고 말할 때가 기쁘죠. 사실 아빠라고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느

김으로 알 수 있죠. 저 말이 지금 아빠라고 하면서 나를 쳐다보는구나(연구참여자 5).

엄마 아빠인지를 다 알거든요. 아들은 그니까 자식간에 참 그런 참 뭐라고 할까요. 혈육의 정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어요(연구참여자 8).

주제묶음 2. 아이로 인해 가정생활이 더 없이 행복함

나를 알아봐 주는 아이는 점점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으며, 더 없는 행복으로 다가왔다. 아이가 엄마만을 찾을 때면 소외감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짜증도 나지만 자신이 공을 들이면 들일수록 다가오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색다른 느낌을 받고 있었다.

아기 없을 때는, 낳기 전에는 아침에 나올 때 무덤덤하게 나오는데 아기 있으면 좋아서 나오기 싫어지고 들어갈 때도 일찍 들어가서 놀아주고 싶은 마음뿐이지. 장난이더라도 실제로 소외감을 느끼지. 왜냐면 엄마하고만 하루 종일 있잖아. 아무래도 인정해. 애기가 엄마를 따르는 건 당연하니까. 당연히 건지 알면서도 뭐 간혹 가다가 잠 오고 짜증날 때는 엄마를 찾잖아. 아빠 안 찾는다고 그 때 소외감을 느껴. 엄마 힘든 데 꼭 엄마한테만 가서 보채는, 나한테 와서 하면 엄마도 안 힘들고 좋지, 이럴 때는 소외감을 느껴(연구참여자 5).

지금은 애가 없었으면 참 어떻게 살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애기가 좋고 우리 아들이 좋고(연구참여자 8).

아이와 함께 누워서 책을 읽고 장난을 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할 수 있죠. 아무튼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 행복한 것 같아요. 아이가 얼마나 아빠에게 많은 기쁨을 제공하는 힘의 원천이라고 봅니다(연구참여자 4).

아침마다 우리 딸한테 한번만 뽀뽀 웃어주라고... 왜냐면 그럼 그 기억이 오래 가거든요. 그 힘으로 하루를 살다가 들어가고 저녁에 힘들어도 애들 보면 채워주고 그러는 거죠(연구참여자 7).

옛날에는 내가 더 잘해 줬는데도 엄마만 찾더니 지금은 아빠를 더 많은 찾는 것같더라고요... 부자지간에 더 끈끈한 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엄마보다는 아빠를 더 따르는 것같더라고요(연구참여자 8).

범주 5. 아버지로서 각오가 생김

주제묶음 1. 내 아버지를 떠올림

연구참여자들은 결혼을 하면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은 했었지만 막상 아버지가 되고 보니 내 아버지는 어떠했었는지, 내 아버지처럼 자녀를 양육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와는 다른 방법으로 자식을 양육해야 되는지 등 예전에는 생각해 보지 않았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을 떠올려 보았다.

나라는 사람도 아버지가 있고 그... 어렸을 때 기억도 있고, 더군다나 사춘기 때 평생 기억은 잊을 수 없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최근의 10년의 기억은 아직도 내 머리 속에 있고 그래서... 현재의 내가 이르기까지의 기억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 뿐 아니라 다른 내 친구 아버지의 좋은 면까지 다 받아 들여가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지요 (연구참여자 1).

내가 아버지와 나이 차이도 많고 친구처럼 자라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에 반하는 애한테는 정말 편하게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는 분위기가 가정의 분위기를 형성해야겠다(연구참여자 2).

주제묶음 2. 부모의 마음을 되새김

연구참여자들은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나하나 수행해가면서 아이에게 정성과 혼신의 힘으로 남부럽지 않게 해주고 싶은 지금의 마음이 자신의 부모가 과거에 자신을 보면서 품었던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헤아려 보기도 했다.

부모란 존재는 참... 대단한 존재고 우러러 볼 수 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아기를 낳고 보니까 그런 면이 더 느껴지지만... 우리 ○○이가 이쁘게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뭐 부모라는 사람들은 모든 정성과 혼신의 힘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연구참여자 1).

부모가 되어보니 아이가 바라는 것을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부모 마음. 그리고 다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아이에게도 해주고 싶고 그니까 그런 거 그런 내 아이에게 만든

남들 부럽지 않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4).

그게 얘기를 낳으면 내 자신보다 얘기를 우선으로 하는데 아마 부모의 마음인 것 같고, 부모님한테 효도해야겠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게 내 자식이 커가는 것을 보는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느낌일 거예요(연구참여자 8).

주제묶음 3. 아버지로서 각오가 생김

자신을 알아보는 아이 그리고 아빠라고 불러주는 아이, 그 아이가 있어서 예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감과 기쁨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삶의 변화를 통해서 과거와는 다른 삶의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과거에는 자신을 중심으로 삶의 목표로 삼았지만 이제는 자식을 위해, 자식에게 창피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아버지로서 각오를 갖게 되었다.

내가 부모로부터 나이 차이도 많고 친구처럼 자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에 반하는 애한테는 정말 편하게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는 분위기 가정의 분위기를 형성해야겠다(연구참여자 2).

우리 ○○를 위해서 내가 더 특별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 같아요. 우리 ○○이 항상 건강하게 살 수 있길 바라고 인자 아무래도 내가 떳떳한 직장을 갖고 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연구참여자 3).

아빠가 되기 전에는 솔직히 안 해 봤는데... 어떤 아빠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해 봤어요. 스스로 창피한 거. 우리 아들이 나를 봤을 때 창피한 거. 나중에라도 우리 아들이 나를 봤을 때 그런 정도만 아니면 어딜 가다가... 우리 아들한테 최고의 아빠는 아니어도 그런 정도... 그냥 소박하게 내가 네 아빠다, 네가 내 아들이다, 그런 모습이고 싶어요... 아이가 있음으로써 내가 살아가는데 소목표가 돼요. '포기하지 말고 최대한 노력하면서 살자'라는 생각은 항상 갖게 하지. 아이가 있으니까... 만약 아이가 없다면 아니 아이가 배속에 있다면 아기가 곧 태어나는데 모험을 할 수가 없지. 혼자 버는데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하는 생각을 될 수 있는 한 하지 않고, 아이 있을 때는 한 눈을 될 수 있는 한 팔수 없고 하루라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그거는 그 전에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일인데 얘기가 태어나고 얘기가 커가고 하니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연구참여자 5).

잘 키우려면 제가 가장으로써 아이에게 뭐... 남들 못지않은 아빠가 되어야 될거구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그런 능력이 있어야겠죠. 더 열심히 사회에서도 일 열심히 하구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아빠가 되어야죠(연구참여자 6).

뭔 일이 됐든 간에 애들 없을 때는 에이 살다가 죽지 이랬는데 지금 저 녀석들이 클 때까지는 안 죽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애들 잘 지켜 줄 수 있을 만큼 지며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 많이 해요(연구참여자 7).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성들에게 있어서 첫아버지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첫아버지됨의 생생한 체험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아동의 직접적인 양육환경으로서 아버지 자신의 성장과 궁극적으로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과 실천방안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첫 아들이 지나지 않는 기혼남성 8명이었으며, 자료는 200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연구대상자가 편안하게 느끼는 공간에서 3회에 걸친 심층면접과 관찰을 통해 수집되었다. 얻어진 자료는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40개의 주제, 14개의 주제묶음, 5개의 범주, 즉 '아버지로 취급받는 생활이 시작됨', '끝이 없는 고통의 실체를 목격함', '가정의 중심에서 벗어남', '아이가 나를 아버지로 알아보는 것 같음', '아버지로서 각오가 생김'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탐색 결과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먼저, 첫 아버지들은 아내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신생아 양육 기간동안 부성전환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들이 부인의 임신과 출산의 시기에 사회적 지위가 아버지로 전환되는 부성전환을 경험하며, 남성들은 아버지로의 역할 전환에 따른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보고한 Hott (197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분석결과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평소 결혼, 임신 그리고 아동 양육의 일련의 순서를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임신소식을 막상 접했을 때는 ‘아버지로 취급당하는 생활’로 인해 기쁘기 보다는 계획에 없는 일이 발생한 것 같은 답답함과 부담감을, 신생아 양육에서는 가정의 중심에서 벗어난 달라진 생활방식에 버거워하는 모습 등 아버지로의 역할 전환에 따른 양가감정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보였다.

둘째, 첫 아버지들은 아내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아이 양육에 있어서 적극적이기 보다는 강요 받고 있는 주변인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는 여성들이 어렸을 때부터 생활속에서 제도화된 어머니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생물학적으로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겪는 반면, 남성들은 아버지 역할에 대한 정의조차 마련되지 않은 사회분위기(조선화, 1997)속에서 생계수단인 직업에 충실함으로써 자녀에게 모범 행동 및 가치관을 보이는 존재로 아버지를 인식(Lemaster, 1974, 조선화·최명선, 2002 재인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첫 아버지들은 아내들의 임신과정, 출산과정 그리고 출산 후 아이 양육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저 모든 과정이 신기하고 버겁고 두렵기만 했고, 아버지로서의 새로운 각오의 내용도 아버지의 역할을 습득시키지 못했던 본

인의 가정과 주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셋째, 첫 아버지들은 아내의 출산과정을 통해 아내와 일치감을, 아이와의 접촉을 통해 혈육의 정을 느끼고 있었다.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것처럼 첫 아버지들은 분만과정에서 ‘끝이 없는 고통의 실체를 목격’하면서 아이보다 아내를 더 걱정하기도 하고 아내를 안쓰럽게 느끼며 아무 것도 해주지 못하는 것이 미안해지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내의 고통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첫 아버지들은 아이의 몸짓, 웅아리 등 작은 변화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아이가 자신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다고 추정하면서 생물학적으로는 느낄 수 없었던 혈육의 정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차은주(1986)는 인간본성의 호기심이 신생아를 자세히 관찰하도록 자극하고 아버지가 아기에게 흥미를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기도 웃음으로써 아버지를 흉내 내고 모방하는 반응의 과정에서 아버지와 아이 사이에는 애착 형성이 강화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첫 아버지들은 아이와의 접촉을 통해 신기하고 낯설게만 느껴졌던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수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었다.

넷째, 첫 아버지됨과 첫어머님됨의 발달궤도 사이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었다. 손승아(2000)의 연구에 따르면, 첫어머니들은 임신사실을 경외스러움으로 받아들이며 임신기간 동안 온통 뱃속 아이에 대한 생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하면서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여성에서 어머니로의 역할 전환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비해 첫 아버지들은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상황, 즉 만삭의 아내, 출산의 고통, 가족 안에 신생아가 있는 상태를 지켜보면서 비로소 내 아버지를 떠올려 보고, 부

모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아버지로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남성은 임신이라는 생물학적 적응기를 갖지 못한 상태로 부모기로 진입하기 때문에 새로운 역할을 쉽게 내면화하지 못하므로 남성이 생물학적으로 아버지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아버지 역할을 착수하는 것이 아니라고 언급한 서혜영(1999)의 연구와 일치하는 점이 있다. 비록 아버지도 영아와 중요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아무리 어린 자녀라고 하더라도 어머니와 동등한 양육능력이 있으며(Parker & Sawin, 1976; 임정아·유은광, 2002 재인용), 남성에게는 아이를 양육하는 일이 책임의식을 갖게 하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며(Canfield, 1995), 자신을 성숙시킬 수 있는 계기(조복희·정옥분·유가효, 1997)가 되겠지만 이와 같은 부모간의 발달적 궤도가 달라질 경우 아동의 친밀감 형성의 장애(서혜영, 1999)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가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상학적 연구가 양적 연구와 같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뜻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추후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첫아버지가 되는 남성에게 대한 반복 연구와 계획에 따라 임신하고 출산한 사례와 아이를 기다리다 임신하고 출산한 사례를 구분하는 등 유형을 분류하여 첫아버지됨의 의미를 알아 볼 필요가 있으며, 둘째,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른 아버지의 역할전환이 돌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고 셋째, 매체 및 기록물을 이용하여 의미를 더욱 명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김귀숙(1998). 아버지상(Father Image)에 대한 해석학적 이론의 적용과 사례연구 : Charles V, Gerkin의 해석학적 방법을 중심으로. 감리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인홍(1997). 아버지상의 역사적 변천, *교육사회학 연구*, 7(1), 73-84.
- 서혜영(1999). 남성의 일-아버지 역할 갈등과 부모 역할 만족도 및 부모로서의 유능감,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승아(2000). 첫어머니됨의 체험,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 순·송희옥(2005). 양육행동에 대한 아동신념과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197-208.
- 신경림(1997). *질적간호연구방법*,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숙현(2001). 전문직 남성의 아버지 역할 : 교수·의사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3(1), 31-50.
- 이영환·이진숙·조복희(1999). 생산적 아버지 노릇 척도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2), 6-10.
- 이정순(2003).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관계, 부모성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4(3), 99-108.
- 임정아·유은광(2002). 산후 아버지 교실이 산육기관리와 신생아 돌보기의 지식정도와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8(3), 345-357.
- 정현희·최경순(1995). 아버지 양육참여와 아동의 성 역할, 정서반응,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6(1), 33-47.
- 조복희·정옥분·유가효(1997). *인간발달*, 서울; 교문사.
- 조선화(1997). 아버지 역할에 관한 우리나라 연구의 동향, *미래유아학회지*, 4, 179-203.
- 조선화·최명선(2002). 아버지의 양육경험에 대한 자기 보고의 내용분석, *한국가족복지학*, 7(1), 95-114.

- 차은주(1986). 아버지의 산전교육이 신생아의 애착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숙(1997).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이해, 원우론집, 25호, 272-284.
- 한경혜(1995). 중년기 아버지의 일과 가족생활, 서울특별시·한국가족학연구회.
- 현정환(2004). 아버지의 아동발달의 이해 및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어머니와의 비교를 통해서, *수산해양교육연구*, 16(2), 171-180.
- Canfield, K. R.(1995), *Effective fathering practices and fathering satisfaction related to a father's life course*. Kansas State University Dissertation.
- Colazzi, P. E.(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 it existential phenomenology*,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Gerson, K.(1997), *A institutional perspective of generative fathering : Creating social support for parenting equality*. Sage Publication.
- Hott, J. R.(1976), The crisis of expectant fatherhood, *AJN*, 76(9), 1436-1440.
- Jeon, Y. G.(1995), *Phenomenology Research*, Seoul : Korea culture Co.
- Lamb, M. E(1981), *The role of father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 Jhon Wiley & Sons.
- Lincoln, Y., & Guba(1985), E., The Impact of illness on later life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165-172.
- Mose, J. M., & Field, P. A.(1997). 신경림 역(2002), *질적연구방법*,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Kvale, S.(1998). 신경림(역), *Interview*, 서울 : 하나의 학사.
- Spielberg, H.(1976). *The phenomenological movement*, Vol. 1 II, The Hague : Martinus Nihoff.

2005년 6월 30일 투고 : 2005년 8월 31일 채택